**로 ﷽﷽﷽﷽﷽﷽﷽﷽5:12entant for the forgiveness from God.누가복음 공부 – 10-2 (누가복음 17:7-10)**

**III. 누가복음 17:7-10 (겸손히 순종하는 무보상의 종/노예)**

**1.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마을에서는 주인과 노예와의 신분관계가 확실하였다. 예수님께서 물론 자신의 언약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게 확실하기에 (누가복음 12:35-38; 마태복음 20:28),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종/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셨고, 이 비유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1) 누가복음 12:35-38에서, 혼인잔치에서 돌아 온 주인이 자신을 기다리던 종/노예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그들을 접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셨다. 종과 주인의 역할이 바뀐 것에 연연할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보자면, 성육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노예들을 섬기시는 주인의 삶이었다.

2) 이 두번째 비유에서 (누가복음 17:7-10), 중근동의 촌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다지 큰 부자가 아닌 집주인이 한 명의 노예/종을 책임지고 살면서, 그 노예와 주인과의 일상적인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밝히셨다. 청중들이나, 제자들에겐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다. 어촌이나, 농촌에서 일꾼 대신에 아예 노예나 종을 집안에 살게 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다.

3) 단어, “노예/종”이 꼭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다. 노예는 주인과 합의하여 삯을 받고 시간제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다. 주인은 종/노예의 노동에 아무런 도덕적, 경제적 댓가를 지불할 책무가 없다. 반면에 노예/종은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며, 모든 의무를 다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예/종이 명령 받은 모든 일을 마쳤다 하여 주인에게 보상이나, 삯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땅에서나 중근동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4) 주인은 노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 들인다. 반면에 노예/종은 주인에게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 받는다. 그렇기에 주인에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뿐, 노예는 삯이나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 맡은 바 일을 다 해야만 한다.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1)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동등한 신분이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빚진 것이 아예 없으시다. 그 분의 제자들은 구원을 예수님께 빚지고 산다.

2) 주인은 자신의 노예/종이 자신에게 당연히 충성을 다 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를 다한 노예/종에게 주인이 “고맙다”는 말을 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노예/종들이다. 그들은 노예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인께 순종하여야만 한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청중들 (제자들)에게 비유 속의 노예와 같은 마음자세와 행동을 그들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비유 속의 노예와 같이 주인께,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일 뿐이며, 주인님의 인정이나, 주실 보상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노예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다. 노예가 자신을 주인에게 고백할 때, 자신이 주인에게, 전혀 “무익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주인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실 필요도 이유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지 의무를 당연히 해야 할 노예일 뿐”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4) 구원은 은혜로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노예나 종에게 그가 수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삯으로 주어 지는 게 아니다.

5)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외아들이요, 그분의 대리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예의 신분으로 그분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